

특별리포트



정읍시보건소 하절기 방역활동

정읍시보건소가 질병관리본부의 '일본 뇌염 경보' 발령과 관련, 하절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소는 "작은빨간집모기에 의해 감염되는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정읍읍과 터미널과 같은 다중이용시설과 취약지역인 용담리와 하수구 등을 순회하며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건소에 따르면 주간에는 모기유충 박멸을 위해 하수구와 정화조, 공중화장실, 다중이용시설, 천변 등지의 취약지를 대상으로 유충약 투약 및 분무와 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또 야간에는 아파트 단지과 주택가, 상가 등 인구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차량연막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는 "모기유충은 페타이어나 쓰레기통, 하수구, 웅덩이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알을 낳고 활동하는 특성이 있다."며 "따라서 여름 장마철 비가 온 뒤에는 집주변의 고인 물과 풀, 잡초 등을 제거함으로써 모기가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없애고, 주변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 기업 현장으로 청취

김제시(시장 이근식)가 14일 불합리한 규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현장 방문,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제시는 이날 '기업 CEO와의 현장에'로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통해 접수된 '깻묵'의 처리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에 적극 나섰다.

깻묵을 처리하는 순동 산업단지내 위치한 잡기를 제조업체는 깻묵이 농산부산물이고 사료로 가치가 있어 사료로 사용되고 있다 면서 공장의 곳곳을 돌며 깻묵의 생산 및 보관 과정을 설명하며 보여주었다.

이에 현장을 방문한 시 규제개혁담당은 깻묵을 손수 만져보기도 하고 냄새를 맡으며 처리과정 등을 보면서 기업 애로 사항을 귀담아 들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교월동, 제현절 태극기 달기

김제시 교월동 주민센터(동장 김태환)는 오는 7월 17일 제68주년 제현절을 맞이하여 11일부터 5일간 태극기 달기 홍보주간으로 정하고 관내 주민들에게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지난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365일 태극기 거리'에 대한 준비를 실시하여 낡고 훼손된 가로등을 일제히 교체하고 또한 불빛으로 게시된 홍보물 등을 수거하여 깨끗한 태극기 거리환경을 만들어 제현절 태극기 게양에 대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직원별 담당마을을 지정 다중이용시설과 공공기관에서는 반드시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도록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새마을회 자원모이기 행사

김제시새마을회(회장 김창수)는 지난 13일 오전 김제 시민운동장 주차장에서 휴식하기 자원모이기 행사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날행사는 관내에 버려지고 소각되는 농약병, 폐비닐로 인해 갈수록 오염되는 농촌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긴 김제시새마을회 회원들이 깨끗한 환경을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취지에서 이번 휴식하기 자원모이기 운동을 추진하게 되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강인식), 새마을부녀회(회장 문순자), 새마을문고김제시지부(회장 채우영) 등 새마을회원 100여명은 이날 평소 알뜰하게 수거해 온 폐농약병, 농약봉지 약 12톤을 김제시의 협조를 얻어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연계, 소중환 자원으로 환원시켰다.

사용량은 10a 당 N-K복합비료로 11~12kg 정도를 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비인 요소비료와 염화가리 비

정읍시, 신태인읍 현장 행정

김생기 시장, 용서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등 주요 현안사업 정책간담회

김생기 시장은 14일 주요 현안사업장을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현장 정책간담회는 주요 사업장을 방문,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추진 상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김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양심묵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신태인읍 용서마을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과(구)화호우체국 실태 및 매입추진 현황, 북부권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 피항정 하연지 개화 및 문화축제 현장 등을 방문했다.

소관부서장으로부터 사업의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김시장은 "지나해 완료한 화호리 근대문화유산지구 보존 및 활용방안 학술용

역 결과를 토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용서마을 일대를 근대문화유산지구로 조성하고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일본식 근대건물을 현대적으로 재창조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우리 민족 농업을 수탈했던 역사현장을 후손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갈 것"을 주문했다.

또한 보물 제289호 피항정과 관련, ▲답장을 없애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나갈 것 ▲연방죽 주변 슬레이트 건물 등을 매입해서 무대를 설치하고 합박두 앞 잔디마당을 객석으로 활용, 피항정과 하연지가 잘 어우러진 지역관광 브랜드로 키워갈 수 있는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지시했다.

특히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애로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책 수립에 철저를 기하고 시민들과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시민 불편 최소화 에 적극 나섬은 물론 우기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대비해 줄 것을 강조했다.

김 시장은 "이번 정책 간담회를 통해 '모든 문제의 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신을 바탕으로 현장 구석구석을 꼼꼼히 살펴보고 최상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 부서장과 관할 읍면동장, 시민들과 함께 현장 중심의 격의 없는 토론과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앞으로도 시민의 삶과 생활환경에 직접 연관되는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 현장점검 정책 간담을 통해 실시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읍 소재 솔병원 설동훈 대표가 부안군청을 찾아 김종규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고 부안개인택시단위조합 김동성 조합장 등 임원 5명도 정기 후원회원에 가입했다.

“부안의 미래 인재 양성 장학사업에 작은 정성 보태요”

설동훈 솔병원 대표, 군청에 나누미 근농장학금 500만원 기탁

부안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부안군 나누미근농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과 정기 후원회원 가입이 잇따르고 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은 지난 13일 부안읍 소재 솔병원 설동훈 대표가 부안군청을 찾아 김종규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이사장에게 장학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솔병원은 정형외과와 일반외과를 진료하는 병원으로 지난해 6월 개원했다.

솔병원 설동훈 대표는 "부안군민들과 동고동락하는 병원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이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인재를 양성하는데 작으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장학금 기탁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안개인택시단위조합 김동성 조합장 등 임원 5명도 14일 부안군청을 찾아 김종규 이사장에게 나누미근농장학재단 정기 후원회원 가입서를 전달했다.

부안개인택시단위조합은 총 160명의 회원이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부안군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부안개인택시단위조합 김동성 조합

장은 "부안의 미래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사업의 취지를 홍보해 전 조합원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전 조합원들은 부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따뜻한 친절로 내 고향 부안을 다시 찾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누미근농장학재단 김종규 이사장은 "지역주민과 함께 나누려는 두 단체의 선의의 뜻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나누미근농장학금 300원 인 확보를 통한 반값등록금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정읍농기센터, 고품질 쌀 생산 영농지도 총력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영농지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기술센터는 "맛좋은 고품질 쌀 생산을 해서는 벼 이삭거름 작기·적량 사용 및 작기 병해충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술센터에 따르면 이삭거름을 주는 시기는 일반 벼의 경우 이삭 패기 15~25일 전(어린이삭1~1.5mm)이 적기이다.

특히 정읍에서 재배되고 있는 신동진인 경우 도복을 방지하고 미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수 15일 전에 주는 게 좋다.

특히 올해 기상여건 및 이삭이 생기는 시기를 감안하면 이삭거름 주는 시기는 예년보다 2~3일 빠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벼인 경우 6월 1일 어린 모 이앙 기준으로는 출수가 8월 13일로 예상되는 만큼 이달 20일 전후가 이삭거름 사용 시기가 될 수 있겠다.

사용량은 10a 당 N-K복합비료로 11~12kg 정도를 주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단비인 요소비료와 염화가리 비

료로 줄 경우엔 요소 4~5kg과 염화가리 3~4kg을 기준으로 잘 혼합해서 줘도 된다.

한편, 잎 색이 짙은 논 또는 도열병 발생 논 그리고 낮은 온도가 지속되거나 장마가 계속 될 때는 각별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질소비료를 20~30% 감량 또는 생략하고 대신 칼리를 20~30% 증시하여 쓰러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이삭거름을 작기보다 빨리 주면 벼의 2~3마디가 길어져 비나 바람에 쓰러지기가 쉽고, 벼 알이 너무 많이 생겨 벼 알을 충분히 채우지 못해 죽정이가 생기기 쉽다.

또한 늦게 주면 이삭이 출수된 후 이삭목과 벼 알에 질소성분이 많아져 이삭목도열병 등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 이삭거름을 많이 주면 쓰러지기 쉽고, 이삭도열병 등 병 발생이 우려됨은 물론 완전 미율이 낮아지고 청미, 심부백미가 증가되어 품질이 저하된다. 따라서 반드시 적기에 적량을 주어야 등숙률이 높아지고 밥맛이 좋아진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특별교부세

7억3600만원 확보

부안군(군수 김종규)이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한 결과 행정자치부로부터 특별교부세 7억 3600만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를 위해 부안군은 김종규 부안군수를 비롯한 부군수와 관련 직원들이 수시로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을 설명하는 등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발 빠른 행보를 이어왔다.

사업별로는 백산면 백산성지 주변도로 정비사업 4억원과 부안 구도심 활성화와 환경개선사업 3억원 등이다.

백산면 백산성지 주변도로 정비사업은 백산성지리~백동초등학교 구간 보행로 확보 및 노후된 백산면 구도심 보행로 및 배수로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주민들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부안 구도심 활성화와 환경개선사업은 구도심 공동화로 주변 상권이 쇠퇴해 낙후된 부안을 동종리 일원에 광장을 설치해 휴식, 만남,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부안=이옥수 기자



참가자들이 12개분임으로 나누어 분임토의를 한 후 분임발표를 통해 군정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부안마실축제

부안군 여성 100명 생각토론회

부안군은 군민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부안군민 100인의 생각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다. 제1회 여백토론회는 부안마실축제를 주제로 여성들이 참여한 가운데 7월 13일 부안예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이 12개분임으로 나누어 분임토의를 한 후 분임발표를 통해 군정에 제안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여성의 눈으로 본 부안마실축제의 잘한 점으로는 먹거리, 볼거리를 비롯하여 체험프로그램이 보다 다양해진 점과 구석구석 청결상태를 유지했다는 점, 풀치여기와 물동이 이고 달리기 등 전래놀이 체험을 공동적으로 들었다. 가장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으로는 결혼식 때 한복 입고 강강술래를 펼쳤다. "농사 지으며 힘들었던 것들이 강강술래를 하면서 풀었다."

"강강술래의 흥이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짧아서 아쉬웠다"는 의견들이 나왔고, 강강술래를 축제 마지막 날 보다는 첫째날이나 둘째날 진행하여 보다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아예 축제 대표프로그램으로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다.

아쉬운 점으로는 축제프로그램에 대한 안내, 어르신들을 위한 쉼터, 부안을 대표하는 특색 있는 2차 가공식품의 먹거리, 아이들 체험프로그램, 밤에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17년 축제프로그램 아이디어로는 변산인형극 부활, 전국품대대회 개최, 자매결연도시의 축제참여, 치맥거리 조성, 오복캐리터틀을 활용한 소품제작, 수다떨기 좋은 마실마당 조성, 자유콘서트 무대조성, 꽃길 동산, 교복 대여 프로그램, 거리형 바리스타 카페, 자전거대회 개최 등 참신한 의견들이 나왔다. /부안=이옥수 기자

무더위 가축 고온피해 예방 당부

김제시, 폭염대응대책 마련

김제시는 14일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시작됨에 따라 축산업 보호를 위해 폭염대응 대책을 마련하고 축산농가에게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온도가 높고 습도가 많은 여름철 가축은 고온 스트레스로 인한 사료 섭취량 감소, 산유량 감소, 산란을 저하뿐만 아니라 면역력이 약해지거나 폐사의 위험성이 높아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여름철 가축관리와 피해예방을 위해 축사는 사전에 환기창, 통풍창 등 환기구를 점검 정비하고 차광막을 설치 태양열을 차단하는 동시에 수시로 물을 살수 축사내부의 온도를 낮추어야 한다.

특히 가축의 고온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는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시원한 물과 조사료를 충분히 급여하는 동시에 비티민, 광물질을 함께 급여하여야 한다.

김제시는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축산농가 보호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가축 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하고 있으며 보험가입은 NH농협손해보험, KB컨소시엄, 한화손해보험 등으로 문의 후 가입하면 된다.

김제시 축산진흥과는 폭염피해 예방과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하고 지속적인 기후 모니터링과 사전대비로 긴급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 폭염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가 정읍역에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명운동 등을 했다

정읍시 '시원한 여름나기 쿨맵시' 캠페인

정읍시가 시원하게 여름을 나면서 온실가스를 줄여 지구의 건강도 챙기자는 취지의 '쿨(Cool) 맵시 캠페인'을 전개했다.

환경관리과 직원 및 정읍지역 그린리더협의회 회원 등 30여명은 지난 12일 정읍역에서 온실가스 1인 1톤 줄이기 서명운동과 탄소포인트제 가입 운동과 연계한 '시원한 여름나기 쿨맵시 캠페인'을 가졌다.

'쿨맵시'는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자는 의미의 '쿨(COOL)'과 옷차림 모양새를 의미하는 '맵시'의 합성어로 시원하고 편할 뿐 아니라 예절과 맵시도 갖춘 옷차림을

의미한다. 시가 제안한 쿨맵시 실천 방안은 ▲넥타이와 상의 첫 단추 풀기 ▲반소매 셔츠와 블리우즈 입기 ▲겹쳐 입지 않기 등이다. 이에 따르면 쿨맵시 옷차림은 체열과 땀을 쉽게 배출해 체감온도를 2°C가량 낮추며 이에 따라 냉방운동을 낮출 수 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쿨맵시 실천을 비롯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녹색아파트 만들기, 에너지 절약 컨설팅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 속 저탄소 실천 운동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